

50대 성인병 예방책

비밀 - 신장질환의 여성에
70대 - 고혈압에
여성도

오늘날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질병구조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다양화로 여러가지 새로운 형태의 질병이 범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무엇보다도 현대 산업사회 발전에 따른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으로 국민건강의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또한 의료예방사업의 중요성이 한층 부각되고 있는 시점과 그 맥이 닿아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현재적인 배경에 건주어 국민보건예방사업의 하나로 실시한 '93년도 직장의료보험조합 성인병 검진사업은 이에 대한 그 관심과 열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직장보험조합 가입자의 35세 이상 피보험자 및 피부양자를 대상으로 한 이번 검진에서는 고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간질환, 빈혈 등 성인에게 일어날 수 있는 질환의 이상 유무를 통해 보다 건설한 자기 건강관리의 실천 및 질환에 대한 유소견율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시행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나이가 들수록 건강검진에 있어서의 정상판정률은 낮아지고 오히려 정밀검진을 요하는 정밀검진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이 있어 질병에 노출되는 사례가 많음을 증명하고 있다. 모두 1,709,797명의 성인병 검진 계획인원 중 457,984명이 수검을 받아 평균 26.8%의 수검률을 나타냈다. 이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계획인원 479,069명 중에서 106,070명만이 수검을 받아 평균 22.1%의 수검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여자는 계획인원 1,230,728명 중 351,878명이 수검을 받아 여자의 경우 평균 수검률은 28.6%로 여자가 남자보다 6.5% 더 높은 수검률을 나타냈다. 또한 이 분석자료에 의하면 피부양자가 피보험자보다 8.5% 더 높은 수검률을 보였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높은 수검률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 수검현황을 보면 제주지역이 평균 36.6%로서 가장 높은 수검률을 나타내는 반면 인천지역이 평균 20.3%로 가장 낮은 수검률을 보였다. 이는 도시보다 지방이 오히려 성인병 검진에 더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질환별 유소견율의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 유소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질환은 고혈압으로 수검인원 10,000명당 1,161명으로 나타난 반면, 유소견율이 가장 낮게 나타난 질환은 폐결핵 질환으로 수검인원 10,000명당 200명이 유소견자로 나타났다. 특히 고혈압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1.4배 높게 나타났으며, 폐결핵은 남자가 여자에 비해 3.9배나 더 높게 밝혀졌다.

'93년도 고혈압 질환의 연령군 유소견율을 보면 45세에서 54세 사이의 증가율이 4.0%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고지혈증은 55세에서 59세의 연령군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간질환은 50세에서 54세 사이에 유소견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빈혈증은 놀랍게도 35세에서 49세의 연령군이 높게 나타났다. 그외 기타 질환은 대체로 연령이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당뇨병질환은 연령이 많을수록 높은 수치를 보이거나 유소견율은 전년도와 대체로 비슷하다. '93년도 당뇨병질환의 지역별 유소견율을 보면 경기, 충북, 제주, 광주지역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제주지역은 '92년도에 비해 2.5배나 높게 나타나 이채롭다.

그리고 당뇨병질환의 '93년도 관계별 유소견율을 보면 지난년도에 비해 배우자

및 직계존속 계층을 제외한 기타의 관계에서는 대체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광업과 전기, 가스,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높게 나타나 보였다. 그리고 이번 검진결과에 대한 분석내용을 보면, 당뇨와 고혈압은 남자가 여자보다 각각 1.7배, 1.4배 높아 「남성질환」으로, 빈혈과 신장질환은 여자가 남자보다 각각 3.2배, 1.7배가 높아 「여성질환」으로 꼽혔다.

당뇨와 고혈압은 연령에 비례해 그 인원수가 늘어나 고혈압은 50~54세의 연령층(1천3백명)이 45~49세의 연령층(9백3명)보다 4.0%가 많아 연령별 평균 증가율인 2.5%보다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당뇨도 50~54세가 564명으로 평균치인 490명을 넘어서기 시작해 50세가 성인병의 2대 질환인 고혈압과 당뇨의 발병에 한 분수령이 되는 「위험한 나이대」인 것으로 분석결과 드러났다. 고혈압은 제주 1,004명, 서울 1,336명, 경기 1,342명 순이고, 당뇨병은 제주 640명, 경기 615명, 충북 593명의 순으로 나타나 제주도민들이 고혈압과 당뇨병 등 성인병에 제일 많이 시달린다는 새로운 내용이 보고되었다. 또한 간염예방사업에서의 결과는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855,795명이 보균자가 4.9%인 41,953명이고 면역자는 41%인 350,755명으로 나타나 보균자가 전년도보다 훨씬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균 연령별로 보면 30~34세가 제일 많은 5.9%이고 성별고 보면 남자가 5.7%이고 여자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번 '93년도 직장의료보험 가입대상자의 성인병 수검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연령별 및 지역별 수검율의 차이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연령별로는 35~39세에서 35.1%의 수검율을 나타냈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수검율이 저하되었으며 70세 이상에서는 11.2%의 낮은 수검율을 보여 수검인원의 균등한 수검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제주지역이 36.6%로 가장 높은 수검율을 나타내는 반면, 인천지역은 20.3%라는 가장 낮은 수검율을 나타내어 성인병 질환의 지역별 유소견을 현황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건예방사업이나 국민의료대책에 있어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또한 날로 변하는 사회구조의 다양화와 이에 따른 국민생활의 폭넓은 영역이 개개인에게 미치는 파장이야말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질병 또한 사회 제반 여건과 맞추어 발생하는 일이라 보다 건강에 스스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한다는 말이 있다. 모름지기 건강에 지켜져야 할 약속이 다른 무엇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켜진다면 개인관리 및 건강관리의 올바른 모델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의료보험조합연합회에서 시행한 성인병 검진은 개인의 건강한 생활 자료로서의 한 시금석이 되리라는 평이다.

• 편집부

